

북스

청춘들이 겪는 사랑의 기쁨과 상실

어린이 책꽂이



▲지구촌 곳곳에 너의 손길이 필요해=꼬박 열두시간을 일하고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아이들, 먹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오염된 물 한 모금이라도 절실한 사람들..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전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엮었다. <뜨인돌 어린이·9500원>



▲나만의 선생님=남이 하라는 대로만 공부하는 어린이는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주인공 민규는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형편 때문에 학원과 과외를 다 끊는다. 성적이 떨어지자 낙담한 민규는 의욕도 없어지고 성격도 어두워진다. 하지만 학습지 선생님이로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과 이유를 듣게 된다. <대교출판·9000원>



▲누구나 세상의 중심이다=18세기 조선 최고의 천문과학자이자 실학자였던 홍대용의 일생과 사상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조명한 그림책. 홍대용이 당시 양반들과 달리 왜, 어떻게 천문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오늘날 어린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웅진주니어·1만원>



▲아름다운 사람 박원순=아름다운 가계를 설립한 인권변호사 박원순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다뤘다. '작은 움직임 하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의 남다른 나눔정신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아이들에게 시민운동과 참여연대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리셀·1만원>



▲우리 아빠, 숲의 거인='생명이 들려준 이야기' '아홉살 인생' 등을 쓴 작가 위기철이 쓴 동화책으로 '나와 다른 너'가 만나 우리가 되고 가족이 되는 신비한 만남 이야기. 내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나 결혼했는지를 지금의 '나'가 들려주는 형식이다. <사계절 출판사·1만2000원>



▲소리가 보이나?=일본 TBS텔레비전의 인기 드라마 '러브레터'에서 태어난 사랑을 주제로 한 그림책이다. 드라마속 주인공 마음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우이다. 그러던 어느날 '하늘'이라는 원숭이 친구가 마음이에 '듣는 소리'가 아닌 '보이는 소리'를 가르쳐 준다. <장수하늘소·1만원>



▲마리와 양 1·2·3=프랑스 남부시골 마을에 사는 한 소녀의 꿈이 서정적인 글과 그림으로 묘사돼 있다. 어린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농촌의 모습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동심의 세계가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지양어린이·1만2000원>

▲사고공치, 숙제하지! =최근 우리 주위에는 주의력 부족으로 산만하고 과다행동을 보이는 ADHD를 앓는 어린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책은 ADHD 기질을 가진 어린이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자연스럽게 없애주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나와 다른 친구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일깨운다. <국민서관·9000원>



어디선가 나를 찾는 ...

신경숙 지음



책을 덮고 나면 한참 그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진다. 윤·명사·미루·단. '여러 개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저자가 세상에 내 보낸 네 명의 주인공은 사랑의 기쁨과 행복 만큼이나 큰 상실의 아픔을 겪어가며 청춘을 버텼다. 165만부 이상 팔린 '엄마를 부탁해'의 신경숙이 펴낸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는 시대대를 건너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일이 시작되기도 한다는 것을 몰랐던' 청춘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 '알리던'에 연재했던 내용을 5개월간 다듬어 내놓았다.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은 팔 년 만이었다. 다로 시작되는 소설은 한 번 손에 쥐면 놓기 어렵다.

한문장 한문장 곱씹게 만드는 신경숙의 문체는 여전히 정성이 느껴지고, 호흡감스럽거나 가볍지 않고 허투로 하나 버릴 것 없는 촘촘한 구성은 책의 몰입도를 높인다.

화자는 엄마를 잃고 상실감에 빠져 생이 험경기만 한 대학생 윤이다. 1년간 휴학을 하고 다시 찾은 학교에서 윤은 명사와 미루를 만난다. 늘 꽃무늬 치마를 입고, 심한 화상을 입어 손을 늘 주머니에 감추고 다니는 미루를 윤은 첫만남에서부터 주목한다. 그리고 미루 곁에서 그림자처럼 함께 하는 명사 역시 그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책은 불운한 시대를 겪어냈던 윤과 명사의 사랑 이야기, 윤과 미루의 우정, 미루와 명사의 애뜻함, 미루의 인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미루의 언니 미래, 윤의 어릴 적 고향 친구인 단의 이야기가 함께 맞물려 돌아간다.

책의 또 하나의 축은 주인공들의 대학 은사인 윤교수다. 주인공들이 첫 만남을 갖게 된 것도 윤교수의 강의실이고, '우리..는..승..을..친..다'라는 글을 적은 윤교수의 강의 교재와 그가 들려준 아이의 몸으로 현현한 예수를 입고 불어날 강물을 건넜다는 중세 성인(聖人) 크리스토프의 이야기는 주인공들의 삶의 좌표가 된다.

윤은 '지..미..를..하..고..있..는..거..야..라는 질문을 던지는 듯한 윤교수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

독서와 삶에 대한 성찰

독서의 알레고리

폴 드 만 지음



독서는 책 속의 기호를 매개로 지언어가 말하는 것을 실제 현실의 사태와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기호의 지시성이 설정되고 이해가 성립한다. 따라서 독서는 일종의 이해 과정이며 지시체와 지시대상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미국 예술학과를 대표하는 해체주의 철학자이자 문화이론가 폴 드 만(Paul de Man·1919~1983년)의 독서와 삶에 대한 성찰이 담긴 '독서의 알레고리'가 번역 출간됐다.

니체, 릴케, 프로이트 그리고 루소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전통적인 의미론과 해석학의 전제를 해체하는 저자 폴 드 만은 이 책을 통해 이러한 독서 행위가 '알레고리'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

독일의 철학자 벤야민이 지적하듯 알레고리는 '의미하는 것'과 '의미되는 것' 사이에 조화로운 일치를 거부하는 '명명스러운'을 내장하고 있는 것. 이처럼 독서는 기표(記號)와 기의(의미)의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인데, 알레고리와 같은 수사학 때문에 이 관계가 흐트러져 '정상적' 이해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기호 체계가 해체되면서 '본래의 고유한 의미'는 도전을 받게 되고 결국 끊임없는 재독서가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문학과지성사·2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예쁜 말하기 '행복지침서'

아나운서처럼 매력있게...

박진영 지음



아나운서들은 타고난 것일까. 처음부터 푹부러지게 말을 잘했을까?

아나운서로 활동했으며 스포치문화연구원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진영씨가 펴낸 '아나운서처럼 매력있게 말하기'에서는 이 물음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대부분의 아나운서는 또렷한 발음과 발성을 위해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거듭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행복한 삶을 위한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박씨는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든,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 라면 모두가 아나운서처럼 매력 있게 말하고 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며 아나운서의 말하기 비법에서 이를 익힐 것을 권한다. 그런 점에서 책은 우리사회 모든 이들을 위한 '행복 지침서'이기도 하다.

방송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말에 대한 에피소드, 그리고 말하기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것 등을 담았으며 마치 방송 원고처럼 청취자를 만나는 기분으로 써내려가간결하면서도 강한 힘이 느껴진다. 박씨는 KBS와 한국교통방송에서 15년 동안 근무 했으며 현재는 동신대에서 학생들에게 스피치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오래·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귀로 듣는 미술작품 이야기

그림 속 음악산책

박혜원 지음



로코코 미술의 거장 장 앙투안 와토의 작품 가운데 '메제탕'(Mezzetin·1720년 작)이란 그림이 있다. 와토가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 일년 전에 그린 수직 줄무늬가 멋스러운 관대(메제탕)처럼의 한 궁중악사가 벤치에 앉아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속 남자는 누군가를 향해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며 사람의 세레나데를 부른다. 어쩌나 그 눈빛이 간절하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짙한 마음이 들게 할 정도다. 하지만 남자 뒤에 있는 등돌리고 서 있는 여인의 석상(石象)은 그의 애절한 구혼에도 열리지 않는 여인의 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일까,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멜랑콜리한 사랑의 세레나데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하다.

화가이자 미술평론가인 박혜원씨의 '그림 속 음악산책'은 눈으로 보는 그림이 아니라 귀로 듣는 그림이다. 유럽의 많은 미술관을 둘러 본 작가는 유독 음악을 주제로 그린 작품을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책은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주제로 한 매력적인 그림들을 엮었다.

저자는 벨기에에서 서양미술사와 관화를 전공하고 1996년 이후 9차례 개인전을 연 작가로, 평화방송에서 '함께 보는 교화미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도 활동했다.<생각의 나무·2만2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서울) 퍼스트부동산

☎ (02) 515-8698 010-6245-5585

전국 판분

싼 땅 팔 분

1천만 ~ 10억 즉시 계약

물물교환도 환영

금산공인중개사

T.681-5888 H.011-6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천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역,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4면 경로변)
- 대지면적: 약 2,50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아시스/유흥가능

주유소부지 급매

- 위치: 전남 강진군 월평면 칠랑농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점유 910㎡
- 특징: -주유시설설치 허가특 -도로점유 허가특 -이명에서 광주광역시 첫주유소부지 -2010년 9월 완공 칠랑농공단지앞 유입주유소
- 매매가: 1억 7천만원

매일동 자연녹지 매매

- 면적: 약 3,870㎡
- 단가: 평당 200만원
- 위치: 매일저수지 옆, 대동고 가는 대로변
- 빌라, 가든, 전원주택 최적합
- 자가 급증지역

아리움공인중개사

☎ (063)583-7788 ☎ 010-8004-5900 (전북 서해안, 서안읍 전동읍사무소)

▶ 펜션건물(투자,직영,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대가 7억
- 직영시 월 수입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용차 2억 이상 가능

▶ 투자용 펜션 용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 볼 갖춘 비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투자 최적합.

▶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하고 한기로운 전원 주택지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새만금 관방시대 일박으로 펜션투자시 광주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급리는 년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밤조개 개봉으로 지금이 투자재기!

인기폭발 신제품!!

아내가 '큰놈'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 폭발이다. 그동안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듯 큰놈을 먹고 이것저것을 고가로 사서 사용해 보았으나 사용하는 것마다 번번이 실패하여 아까운 돈만 날려 버리고 허탈감 속에서 불신만만 쌓여 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큰놈을 보고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듯이 혹시나 하고 이원에도 만신반의하여 사용해 보았더니 그 신기함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사용후시 절끈 일어서서 장시간 지속되니 꿈인지 생인지 청춘으로 돌아간 듯 뿌듯할 줄 느꼈다. 별기부터 관심을 위한 기구 실용신안 특허 제20-2009-0014857호는 보지 않고 구매 하여도 피부같은 촉감이

달팽이 모양같은 실리콘이 처음 보는데 주사나 약도 아니고 반지 같은 링이나 진공 펌프도 아닌 신제품 큰놈은 사용이 편리하고 간단하여 고강도 없이 반영구적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불타나게 날개 돋쳐 나가고 있다. ※ 기구를 선호하지 않는 분은 회춘의 꿈, 파워마크100% 분말로 대신하면 좋습니다.(30원분 90,000 60원분 150,000) ※ 구매시 항나경사직이 없는 것은 유사품입니다. 99,000원

인기폭발 "양코" 지구력향상!!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지수입품입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 당당해 지므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통신판매 신고증 제1188호) (G-FLOW)

1588-4102 010-8558-4114, 010-8952-4114

농협 301-0036-8883-71 메가주클럽 한나경 www.한나경.kr

USA식약청 통관수입품

명품사나이

킹카

그린렐리비타2 60정

마지막으로 선택한

센놈

비타맥스 20정

40대부터 80대까지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니 남자에게는 정말 좋고 지구력이 향상되어 성취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약품이 아닙니다)

1577-4101/010-8952-4114 1588-4101/010-8558-4114

다히트 오래~오래~

신상품 롱~링

특: 대, 중, 소 47ml 1set 88,000원

남자에 발기능력은 지키기 위해 달려있다. 왜소하고, 빠르고 힘이 없고 남성의 3대 고민은 오래~오래~ 롱~링으로 개선했다. 지동으로 흔들려주고 떨어주며 롱~링은 소프트하고 무게감이 없고 반영구적이며 위생적으로 탁월하여 여성으로부터도 호감을 받는다.

(주) 글로벌 (전국 대리점 모집 문의: 011-895-4114) www.한나경.kr

1577-4101/010-3518-8995 1588-4102/010-5296-4114

통신판매신고 NO 제19-5301호 농협 023-02-469331 권의빌